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35호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 편집장 김지수

hufs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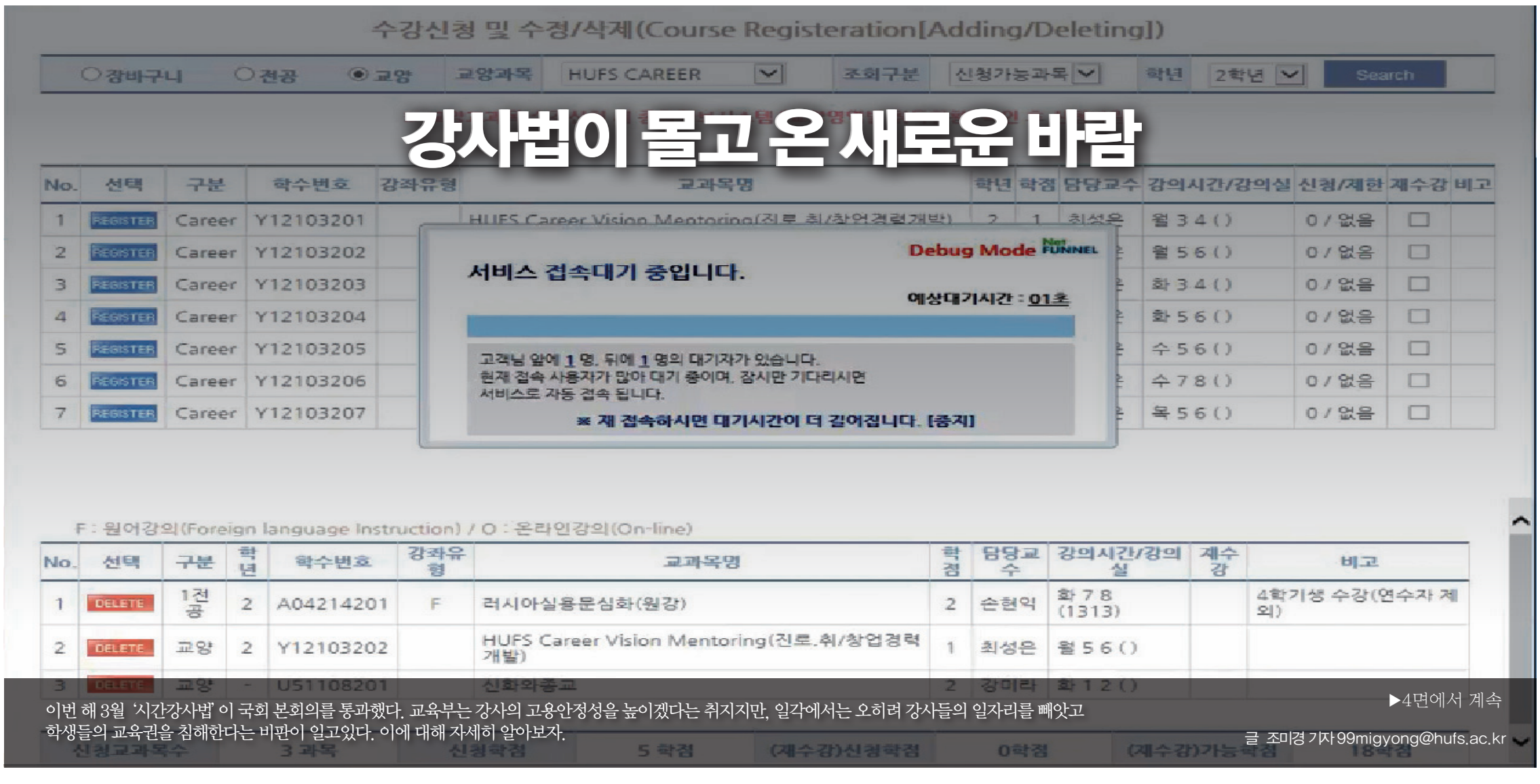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기획] 》 4면
강사법이 몰고 온 새로운 바람

[기획] 》 5면
강의 거래, 원인과 대책은?

[사회문화] 》 8면
아마존 화재를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

[학술] 》 9면
홍콩 시위



강사법이 몰고 온 새로운 바람

이번 해 3월 '시간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 조미경 기자 99migyong@hufs.ac.kr

우리학교, 이번 해 외교관 후보자 6명 배출해

이번 달 10일,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총 41명으로 우리학교 학생 △채균호(상경 · 국통 08)△이새봄(아시아 · 아랍어 08)△김혜민(국제지역대학원 · 중남미지역학 10)△이진국(아시아 · 아랍어 12)△김윤주(서양어 · 노어 13)△임향미(서양어 · 네덜란드어 05) 씨가 합격했다. 이 중 채균호 씨와 임향미 씨는 각 일반외교와 외교전문 직렬을 맡았다. 이 외 4명의 학생은 지역외교 직렬을 맡았다.

한편 이번 해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일반외교 분야에는 1,109명이 응시했으며 △1차 시험(공직적격성평가 · 선택형)△2차 시험(전문과목평가 · 논문형)△3차 시험(면접) 총 3차례의 과정을 거쳐 총 33명이 선발됐다.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에는 83명이 응시했고 지역외교 분야에서는 6명, 그리고 외교전문 분야에서는 2명이 최종 선발됐다. 최종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1년간 교육과정을 거친 뒤 외무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우리학교 학생 15명,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CPA)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모두 1,009명으로 우리학교 학생 △정지훈(영어 · 영문 09)△윤상훈(경영 · 경영 11)△이종원(경영 · 경영 12)△권성민(상경 · 경제 11)△박철완(경영 · 경영 12)△박진수(경영 · 경영 06)△홍준형(법 · 법 08)△유민혁(사회과학 09)△장지원(경영 · 경영 13)△황현경(경영 · 경영 09)△이재만(경영 · 경영 09)△이시윤(상경 · 국통 06)△안찬희(경영 · 경영 12)△박상언(영어 · 영어 12)△박지언(서양어 · 프랑스어 09) 씨가 최종 합격했다.

이번 해 열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는 8,512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008명이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어 진행된 2차 시험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등을 포함해 총 3,067명이 지원했으며 1,009명이 최종 합격을 거머쥐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달 4일부터 5일, 그리고 10일부터 11일 두 번에 걸쳐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합격증서 수여식 및 축하행사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해당 행사에 참여한 최종합격자들은 공인회계사 윤리강령을 지키고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선서를 진행한 바 있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우리학교 조정부, 국제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

이번 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내몽골자치구에서 열린 조정국제대회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소속 조정부가 한국 대표로 출전했다. 우리학교 조정부는 남자에이트 1,000m와 남자에이트 6,000m경기에 참가했으며 대회 기간 동안 △중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다른 국가의 조정팀과 경기를 진행했다.

한편 우리학교 조정부는 1961년 창단돼 1기부터 57기까지 모든 부원들이 1년에 2회 이상 교류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정부는 △2012년 부산시장기 조정대회 남 · 여 포어팀 우승△2014년 전국대학 조정대회 남 · 여 포어팀 3위△2015년 서울시장기 조정대회 여자 포어팀 우승 등 여러 대회에 참가해 수상했다. 김영욱(LD · 19)조정부 회장은 "조정부가 학우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묵묵히 한 길만 걸어가고 있는 저희 동아리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학교의 슬로건처럼 조정부도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중이며 함께 역사를 쓰고 싶은 학우는 언제나 환영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우리학교 조정부 사진 (출처 : 조정부 페이스북 페이지)

한태현 기자 98madc@hufs.ac.kr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증·개축 공사 원활히 진행돼

▲증 · 개축 공사가 진행 중인 스마트도서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증 · 개축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0일 도서관은 증 · 개축 공사를 위해 휴관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 증 · 개축 공사는 다음 해 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다음 해 2월에는 도서관 서고 및 자료가 이전된다. 학생들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재준 건설기획 팀장은 "현재 공사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공사는 75%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관 공간 활용에 대해 명형택 학술정보팀 과장은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예정된 스마트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6층의 건물이며 기존 도서관 면적에서 1,600평이 추가돼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지상에는 △열람실△휴게 공간△개인 스터디룸이 생기고 지하에는 책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들어선다. 또한 열람실 좌석간의 간격을 넓히는 등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엘레베이터 설치△냉난방 시설 도입△내부 마감재 교체△내진설계 도입이 예정돼 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글로벌캠퍼스 체전 '왕산 한마당' 개최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서 체전 '왕산 한마당'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엔 글캠의 모든 학과가 참여 대상이다. 각 과내에서 종목마다 대표 선수를 선발해 승패를 겨루게 된다. '왕산 한마당'은 △축구△농구△피구△발야구△계주△줄다리기△단체줄넘기 총 7가지 종목으로 구성됐다. 각 경기는 종목에 따라△백년관 운동장△백년관 컨퍼런스홀△어문학관 소운동장에서 이뤄진다. 왕산 한마당 1주차에는 컴퓨터시스템공학부가 21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글캠 총학생회 리액;션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세한 △경기 대진표△경기 규칙△주의사항 등을 게재했다. 결과는 모든 경기가 결승전까지 마쳐진 뒤, 각 과가 참여한 종목별 순위를 종합적으로 산정해 결정된다. 다음달 7일 최종적으로 매겨진 순위를 바탕으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태현 기자 98madc@hufs.ac.kr

동대문구 3개 대학 정기 교류대항전, 트로이카-역동전 예선 치러

▲트로이카 역동전 결선 포스터

이번 달 10일부터 18일까지 동대문구 3개 대학에서 역동전 예선이 치러졌다. 역동전은 △우리학교△경희대△시립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기 교류대항전 트로이카의 체전이다. 예선전 종목은 △남자축구△여자축구△여자피구△농구△테니스△E-스포츠였다. 우리학교는 이 중 △남자축구△여자축구△여자피구 3개의 종목에서 결승전을 갖는다. 예선전에서 우리학교 남자축구팀은 시립대와의 경기에서 3:2로 승리, 경희대와의 경기에서는 1:2로 패배했다 여자축구 팀도 마찬가지로 시립대와의 경기에서 2:2로 무승부, 경희대에는 7:1로 승리했다. 여자피구 종목은 경희대에 3:0로 승리, 시립대에 0:2 패배했다. 트로이카의 결승전은 △23일 서울시립대(피구)△24일 서울시립대(테니스)△25일 우리학교(농구)△26일 서울시립대(축구)△27일 E-스포츠(온라인)에서 열린다.

한편, 트로이카 역동전은 스포츠의 치열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쟁심과 스포츠맨십을 통한 △친목△존중△화합 도모에 목적이 있다. 체전 이외에도 공연을 교류하는 악동제와 학술 및 전시를 교류하는 감동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글로벌캠퍼스 교내 셔틀버스 운행,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정문부터 교양관까지는 약 1.76km로 도보로 약 26분, 그리고 백년관부터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인문·경상관 까지는 약 1km로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된다. 이 거리를 쉬는 시간 10분 동안 이동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학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선 교내 셔틀버스와 관련한 불만 사항 및 대안에 대해 알아보자.

◆타기 힘든 교내 셔틀버스

먼저 교내셔틀의 수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현재 버스의 노선은 △외국어대 사거리△모현 사거리△기숙사△도서관△교양관△어문관△인문 · 경상관 순으로 운행된다. 이 중 자취방이 밀집돼 있는 외국어대 사거리와 모현 사거리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구역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인 △1교시△3교시△5교시 시작 전에는 셔틀버스가 거의 만석인 채 출발해 학교 내 다른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은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기숙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던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앞까지 가서 셔틀버스를 타거나 걸어간다.

광역버스도 외국어대 사거리에서부터 학생들을 무료로 수송하긴 하지만 이는 도서관 앞까지만 운행된다. 따라서 도서관보다 멀리 있는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임경연(통번역 · 스페인어 19) 씨는 "셔틀버스의 운행횟수를 늘린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를 파악해 그 시간대의 셔틀버스 운행횟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된다면 여유롭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석중 글캠 총괄지원팀 팀장(이하 김 팀장)은 "학교 예산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개선은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1교시 시작 전 기숙사생들을 위해 추가적 배차를 하고 통학버스를 이용해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광역버스 이용은 학생들의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버스회사에 문의를 해봤다"며 "버스회사에서는 인문 · 경상관까지는 도로가 좁고 경사가 급한데다 눈과 비가 올 경우 등 기상문제도 발생하곤 해 운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

교내 셔틀버스의 배차 간격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셔틀버스는 총 4대이며 6분에서 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쉬는 시간 10분 안에 백년관에서 △교양관△어문관△인문 · 경상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셔틀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서 불편하다"며 "특히 아침 시간엔 줄을 오래 서도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안서영(통번역 · 스페인어 19) 씨는 "학교 버스정류장에 버스 도착을 알리는 전자알림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으로써는 학생들이 다음 버스 도착에 대해 아는 방법은 정류장에 붙어있는 종이 운영 시간표와 학교 앱을 확인하는 게 전부"라며 "전자알림판이 설치된다면 학생들이 확실한 버스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각을 알 수 있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걸어가는 등의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고민했던 부분이지만 이 역시 예산문제로 실행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팀장은 "버스 업체에 계속해서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요청하고 있지만 버스 기사들의 법적 휴게 시간 보장 때문에 이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괄지원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학생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나와 셔틀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안희태(통번역 · 영어 19) 씨는 "강의실 대부분이 교양관과 어문관에 있는데 셔틀버스를 타지 못해 걸어가는 날에는 몸이 힘들어서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붐비는 시간에 추가 배차를 하는 등의 대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교내 셔틀버스 운행 현황이 딱히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윤재(국제지역 · 한국 19) 씨는 "셔틀버스 운영에 관해 불만이 생기는 주원인은 강의 시작 직전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조금만 더 여유롭게 나와 버스를 탄다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교내셔틀 정류장

글로벌캠퍼스 교내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구분	학기 중 (평일)		시험기간 (평일, 2주간)		주말(토,일), 공휴일
출발지	모현사거리 상행출발	인문경상대 하행출발	모현사거리 상행출발	인문경상대 하행출발	
출발시간	7:40	7:50	좌측과 동일		주말(토일)과 공휴일엔 교내셔틀이 운행하지 않으니, 교내로 진출입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5,1117,1150,1303번만 외국어대입구↔학교 구간만 평일,주말,공휴일 승하차무료
	8:00	8:10			
	8:20	8:30			
	8:40	8:50			
	8:50	9:00			
	수시(6-8분간격)	수시(6-8분간격)			
	9:40	9:55			
	9:50	10:05			
	10:00	10:15			
	10:00~18:00 10분 간격 운행	10:05~17:55 10분 간격 운행			
	중식 미운행12:30	중식 미운행12:25			
	중식 미운행13:00	중식 미운행12:45			
	18:00	18:00			
	18:15	18:15			
	18:30	18:30			
	18:45	18:45			
	19:00	19:15			
	석식 미운행19:30	석식 미운행19:45	석식 미운행19:30	석식 미운행19:45	
	20:00	20:15	석식 미운행20:00	20:15	
	20:30	20:45	20:30	20:45	
	21:00	21:30	21:00	21:15	
			21:30	21:45	
			22:00	22:15	
			22:30	22:45	
			23:00	23:15	
			23:30	23:45	
			0:00	0:15	
			0:30	0:50	

※ 시험기간 1주전(월~금) + 시험기간 1주(월~목) 새벽 1시까지 운행
※ 출발시간은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실시간 버스위치는 앱으로 확인바랍니다.
※ 셔틀버스 운행은 학기 중 기준이며, 주말과 공휴일엔 미운행합니다.
※ 셔틀버스 운행관련 문의전화 : 031-701-2266(나이스관광) / 031-330-4393(기사대기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교내셔틀 시간표 (출처:우리학교 홈페이지)

▲우리학교 교내셔틀 버스

◆다른 학교에서 운영되는 셔틀버스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카이스트 등에서도 교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교내순환1△교내순환2△교내순환3(심야셔틀)으로 노선을 나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교내순환1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은 6분 정도이며 교내순환2 노선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추가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이는 학기마다 차량 이용 학생의 수와 이동 위치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지정 · 운행한다. 이 밖에도 일반 시내버스가 캠퍼스 안까지 운행하며 학생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정문 주간 노선△정문 야간 노선△정문 직행 노선△경복궁역 노선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우리학교보다 길다. 하지만 학교 내 노선이 많다는 점과 중식과 석식 시간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분 간격으로 교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고려대는 우리학교와 비슷하게 점심시간에는 45분 동안 셔틀 운행을 중지한다. 카이스트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셔틀을 운행하며 교내 8개의 정류장에 정차한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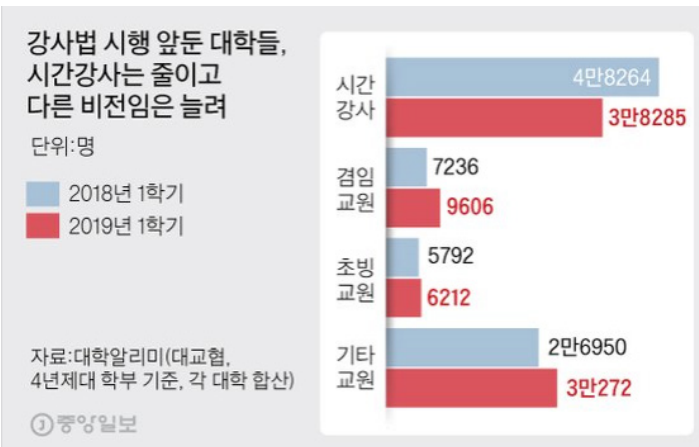
강사법이 몰고 온 새로운 바람

이번 해 3월 '시간강사법'(이하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된 후, 우리학교를 포함한 사립대학교(△고려대△경희대△건국대△중앙대△한양대 등)는 교수 임용을 줄이거나 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선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강사법에 따른 우리학교의 강의 관련 구조조정과 학교 측 대응에 대해 알아봤다.

◆ 강사법의 문제점과 정부의 해결방안?

강사법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의 △공개임용△1년 이상 계약△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교원 소청심사청구권 보장△방학 중 실질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 도입된 강사법은 이번 해 1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유예 강사법'에 비해 교수시간(주당 6시간)이 제한됐고 고용유연성(간소한 공개임용절차, 계약 기간 예외 인정 등)이 확대됐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학들은 "대학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시간강사를 한번 고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3년간 임용을 유지해야 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는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해 전국 399개 대학의 강사 수는 지난해보다 1만 1,621명이 줄었다. 전체 강사(5만8,546명) 가운데 1만 명 정도(19.8%)가 1년 만에 대학에서 해고된 것이다. 대학들은 강사 고용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강사법을 꼽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 정원 감소 등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해와 이번 해의 교원 수 비교 (출처: 중앙일보)

강사법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의 △공개임용△1년 이상 계약△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교원 소청심사청구권 보장△방학 중 실질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 도입된 강사법은 이번 해 1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유예 강사법'에 비해 교수시간(주당 6시간)이 제한됐고 고용유연성(간소한 공개임용절차, 계약 기간 예외 인정 등)이 확대됐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학들은 "대학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시간강사를 한번 고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3년간 임용을 유지해야 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는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해 전국 399개 대학의 강사 수는 지난해보다 1만 1,621명이 줄었다. 전체 강사(5만8,546명) 가운데 1만 명 정도(19.8%)가 1년 만에 대학에서 해고된 것이다. 대학들은 강사 고용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강사법을 꼽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 정원 감소 등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청심사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강사법으로 인한 우리학교의 변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지난 7월 진행된 중앙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강사 수 변화△학과·학부별 개설학점 조정△개설학점 조정에 따른 이수제도 변경△교원 신분별 학점 배분에 대해 보고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0명의 강사를 채용했다. 반면 이번 해에는 강사법이 도입돼 강사 약 700명과 객원 강사 약 300명을 채용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교원이 180명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에 교무처는 "강사법에 맞춰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선 기존 강사 모두에게 6학점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사법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교수는 객원 교수나 특임 교수로 채용됐다.

강사법, 교육부 "강사의 교용안정성을 높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하지만 대학들 "대학의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 반박

우리학교 교무처 "자유선택 학점 교양학점으로 인정", "핵심인문기초영역 이수학점 4학점->2학점으로 감축" 등 제도 변경

"강사, 강의계획서도 없이 강의명만 보고 강의 신청", 학생들 '깜깜이 수강신청'으로 불만 토로

또한 교무처는 학과·학부별 개설학점에 대해 "전공 강의 개설 증감은 학과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했으며 교양 과목의 경우 과목 자체는 살리되 분반을 줄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철학으로의 초대' 강의는 지난해 2학기엔 두 강좌가 열렸으나 이번 해 2학기엔 한 강좌만 개설됐다.

이어 교무처는 교양 필수 이수 학점 감소 우려에 관해 자유선택 학점을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한돼 있던 필수교양 영역을 통합하고 필수교양 이수학점을 줄이는 식으로 운영된다. 핵심인문기초영역 같은 경우 이전에는 4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2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필수교양 5개 영역(△언어와 문학△문화와 예술△역사와 철학△인간과 사회△과학과 기술) 역시 과거에는 4개 영역에서 8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2개 영역에서 4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교무처는 교양 과목을 사이버대학교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사법 시행 발표 이후, 우리학교는 2학점의 교양수업을 맡는 강사들까지 강사법에 따라 채용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교무처는 이런 상황이 우리학교에 부담이지만 교양 대학에서 요구하는 만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사의 후속세대 자격 역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과 희망 시 신임교수의 임용을 최대 30%까지 배분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각 학과 사정에 맞게 배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임교수와 비전임 교수에게 배분된 학점은 비슷하나 전임교수가 담당했던 학습 포트폴리오가 사라짐에 따라 전임교수 담당 학점이 늘었다고 밝혔다.

*학문 연구 작업을 맡을,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을 이르는 말. 대학원생과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친 뒤 취직을 하지 않은 연구 인력을 이른다.

◆ '깜깜이 수강신청', '폐지되는 강의'로 고통 받는 학생들

지난달 5일, 우리학교 학생들은 약 959개의 강사 미정 강의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지난해보다 적게 열린 강의 수 때문에 희망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도 늘었다. 홍유진(사회·미디어 18) 씨는 "수강 희망 강의를 예비 장바구니함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폐강이 됐다"며 "전공수업이라 다른 수업으로 대체해야 했는데 수강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표를 조정하려니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류은서(서양어·스칸어 18) 씨는 "수강신청을 할 때 강의계획서가 없어 막막했다"며 "강의명만 보고 한 학기 동안 들을 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종섭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이하 전 교무처장)은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학생들이 강사와 강의계획서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했을텐데 학교를 믿고 따라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학교는 강사법이라는 폭풍 속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전 교무처장은 "4월부터 강사법 위원회를 만들어 변경된 조항에 대비했다"며 "전국 59%의 대학이 8월까지도 강사를 채용하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우리학교는 순조롭게 강사채용을 완료해 자랑스러웠다"고 밝혔다. 또한 "강사법에 대해 일부는 조속하게 제정했다고 우려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중요한 제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실제로 강사법을 통해 우리학교의 강의의 방향을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전 교무처장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 방향과의 연관이 불분명한 강의들을 줄이고 학생들의 미래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5일, 강사 미배정 교양 강의의 신청 가능 인원이 0명으로 표기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학사종합지원센터는 강사 배정 이후 강의 시간이 변동될 가능성을 두고 해당 강좌의 수강을 제한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이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강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과 해당 강의의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는 강의 시간이 변동될 가능성이 적다는 중앙운영위원회와 교무처의 면담 결과와 상반된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는 8월 26일에 추가 수강신청일을 운영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 강사법 시행령에 따른 채용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강정정 및 기존에 신청이 불가했던 과목의 신청이 이뤄졌다.

조미경 기자 99migyong@hufs.ac.kr

강의 거래, 원인과 대책은?

수강신청 기간, 학교 근처 피시방은 수강신청을 하려는 학생들로 붐빈다. 그러나 강의마다 수강 인원이 제한돼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수업을 신청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수강신청을 실패한 학생들은 학점을 채우기 위해 강의 잔여석이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친구에게 대리 수강신청을 부탁하기도 한다. 심지어 학생수요가 많은 강의는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학생들은 강의 거래에 대해 원칙상 금지된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는 수강신청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이에 강의 거래의 주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 수강신청 대란, 왜 일어나는가?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수강신청 시스템은 학생들이 학년별 지정 날짜에 수강신청을 진행한 뒤 정정기간을 통해 신청 강좌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강의 수용 인원 제한으로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전공과목의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강의에 대한 증원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강좌의 수강생은 이미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 인원 자체가 많고 이중전공생이 대거 유입되는 △글로벌경영대학△상경대학△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학기마다 수강신청 대란을 겪고 있다.

고윤성 우리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장(이하 고 학부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학교 측에도 강의를 추가적으로 배정해달라고 지속적인 요청을 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원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며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 인원을 수용 중임에도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이수중인 문희진(아시아·아랍어 18) 씨는 "강의 사고팔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중전공이나 부전공생은 1전공생 전용 강의를 들을 수 없어 힘들게 수강신청을 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강인원	국문강좌수	원어강좌수	총강좌수
40명 이하	17	0	17
40-50명 이하	10	4	14
50-60명 이하	9	7	16
60-70명 이하	11	7	18
70-80명 이하	21	13	34
80명 초과	2	2	4
	70	33	103

▲표 1 : 이번 해 2학기 우리학교 경영학부 수강인원 분포별 강좌 수

한편 최근 시행된 강사법의 영향으로 교수가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병호 우리학교 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팀장은 "강사법 시행 여파로 수강신청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 수강신청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난 강의계획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이는 우리학교에서 처음 실시해 타 학교에서도 참고 사례로 활용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강의 사고팔기,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학교 학생징계규정 제13조 기타 규정에는 '△대학의 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 사용△불법유출△파괴△변경 및 그 운용을 방해한 학생에게 유기정학 징계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 '그 밖에 대학 교육목적에 위반된 행위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와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는 해당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강의 거래 현상은 포괄적인 교내 징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학종지에 따르면 아직까지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없다.

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황우정 학종지 과장(이하 황 과장)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황 과장은 "강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달 초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며 "강의 거래 관련 게시물 캡처 화면을 직접 목격한 뒤 대안을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해 약 한 달 간 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의 거래가 단지 서울캠퍼스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글로벌캠퍼스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학교는 수사 기관이 아니며 강의 거래 대부분이 익명으로 이뤄지기에 당사자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교내 기관의 공통 의견이 존재했다.

현재 양 캠퍼스 학종지 팀이 △행정상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 선△학생 요구 수용△학교 시스템 상 개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선범(서양어·포르투갈 17)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학생들의 수업 수강권이 근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해당 사안은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권 주요 대학 수강신청 시스템은 크게 △마일리지제도(연세대)△대기순번제(이화여대 외)△취소 후 시간차 반영 시스템(한양대)로 나뉜다. 황 과장은 "타 학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보를 받은 뒤부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현재 교내의 다양한 부처와 협동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설 강좌가 적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누구나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기 강좌만 개설할 수는 없다"며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 또한 대학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수업이 부족하다는 것이 절대적인 양의 부족인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해서 체감 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학부장 역시 "학생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학교 측 역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Declarația de independență (1 martie 1919)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외대학보 공동기획

번역
엄태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전임연구원

감수
김정환
루마니아어과 교수

Noi prin aceasta proclamăm independența Coreei și libertatea poporului coreean. Anunțăm acest lucru națiunilor lumii pentru a manifesta principiul egalității omului şi îl transmitem în posteritatea noastră pentru a păstra pentru totdeauna drepturile legitime ale poporului nostru de autoconservare. Declarăm acest lucru pe baza prestigiului istoriei noastre de cinci milenii și în numele a douăzeci de milioane de oameni uniți, pentru a asigura progresul perpetuu, permanent și nerestricționat al poporului nostru și pentru a se alătura mișcării mari pentru reconstruirea ordinii mondiale, inspirată de conștiința omenirii. Acestea sunt în conformitate cu porunca divină, marea tendință a timpului și cu manifestarea populară a principiului coexistenței întregii omeniri. Nimic din această lume nu poate opri sau suprima acest lucru.

Pentru prima dată în istoria a câtorva mii de ani, poporul nostru a suferit, în ultimul deceniu sub dominație străină, tiranie și opresiune, moștenite din antichitate. Cât de mult din dreptul nostru la viață a fost jefuit? Cât de mult din progresul nostru spiritual a fost interzis? Cât de mult din onoarea și demnitatea noastră au fost încălcate? Și cât de mult a fost pierdută oportunitatea noastră de a contribui la progresul cultural al lumii prin noile noastre viziuni și creativitate? Dacă trebuie să facem cunoscute lumii necazurile noastre din trecut, să ne eliberăm de suferințele noastre actuale, să eliminăm amenințările viitoare, să restabilim demnitatea distrusă a poporului nostru și prestigiul scăzut al națiunii noastre, să cultivăm caracterul cetățenilor individuali, să nu lăsăm moştenire copiilor noștri aceste realități rușinoase, să asigurăm veşnic o viață plină de bucurie pentru posteritatea noastră, prima noastră sarcină urgentă este asigurarea independenței poporului. Astăzi, douăzeci de milioane de inimi sunt dedicate atingerii acestui scop, iar natura generală a umanității și conștiința veacului ne sprijină prin armatele dreptății și armele legii morale. Nicio barieră nu este prea puternică pentru a ne separa și nici un scop nu este de neatins.

Nu suntem aici doar să acuzăm Japonia de încălcarea a numeroase acorduri solemne încheiate încă de la Tratatul de prietenie din 1876. Nici nu suntem aici pentru a mustra Japonia pentru lipsa ei de integritate și loialitate, doar pentru că profesorii japonezi în clasă și politicienii, în practica lor au privit poporul nostru civilizat ca sălbatici, căutând numai plăcerea cuceritorului și au disprețuit tradițiile noastre şi nemaipomenita natură a poporului nostru. Într-adevăr, nevoia urgentă de a reflecta asupra noastră și nevoia de a autoinova nu ne permite să dăm vina pe ceilalți. Nici noi, cei care lucrăm din greu pentru a îndrepta greșelile din epoca actuală, nu ne putem permite să ne irosim timpul pentru a critica trecutul. Sarcina noastră de astăzi constă numai în auto-reconstrucție și nu în distrugerea altora.

Scopul nostru constă doar în dezvoltarea noului destin în conformitate cu dictatele solemne ale conștiinței, nu în invidierea sau respingerea altora, fiind influențați doar de emoții momentane sau resentimente față de trecut. Scopul nostru este de a îndrepta și de a reforma situațiile nenaturale, ilogice și neadecvate ale zilelor noastre, create de politicienii japonezi înfometați de putere și de celebritate fiind legați de idei învechite si de un regim arhaic. Ținta noastră este de a restaura aceste situații spre a fi armonioase cu principii care sunt naturale și logice. Uitați care este rezultatul anexării aduse împotriva dorințelor noastre! Sub tratament nedrept și inegal, opresiunea sufocantă, statisticile ipocrite și falsificate, resentimentele poporului nostru care împiedică pentru totdeauna existența armonioasă a celor două popoare cu interese opuse se aprofundează mai mult. Este evident că cea mai scurtă cale spre evitarea dezastrelor și spre o prosperitate între cele două popoare este să ia măsuri înțelepte și curajoase pentru a remedia erorile din trecut și pentru a cultiva noi relații prietenoase bazate pe înțelegere și simpatie adevărată. A constrânge douăzeci de milioane de oameni plini de furie nu numai va ruina pacea pentru totdeauna în Orient, ci și va adânci din ce în ce mai mult frica și suspiciunea față de Japonia a patru sute de milioane de chinezi pe care se bazează pacea în Orientul Îndepărtat. Cu siguranță va aduce tragedia distrugerii reciproce a întregii regiuni din Orientul Îndepărtat. Prin urmare, independența Coreei va permite poporului nostru să supraviețuiască şi să prospere, oferindu-i Japoniei şansa să evite calea greşită, să își îndeplinească responsabilitățile importante ca lider al Orientului Îndepărtat și să salveze China din neliniște și frică zdrobitoare. In plus, acțiunea noastră este luată ca un pas necesar pentru instaurarea păcii în Orientul Îndepărtat și în restul lumii și pentru promovarea fericirii întregii omeniri.

Cum ar putea fi asta o simplă izbucnire a emoţiilor noastre! Iată, o nouă lume se desfășoară înaintea ochilor noștri. Epoca forței a dispărut, iar Epoca rațiunii și dreptății a sosit. Spiritul legii morale și al umanității, cultivat și perfecționat în secolele trecute, este pe punctul de a răspândi lumina noii civilizații asupra istoriei omenirii. Sosirea noii primăveri pe pământ necesită renașterea tuturor ființelor. Dacă împrejurările trecutului au sufocat poporul precum frigul nemilos, atunci starea epocii actuale este cea în care bate briza revigorantă și căldura primăverii. Găsindu-ne în această epocă de restaurare și reconstrucție, fiind purtați de valul schimbător al lumii, nu ezităm nici nu ne temem să ne îndeplinim sarcina. Trebuie să ne protejăm drepturile necondiţionate la libertate și să urmărim fericirea unei vieți depline. Este datoria noastră sacră de a ne expune creativitatea indigenă și de a obține gloria spirituală a poporului nostru într-o lume plină de energia primăverii. Din aceste motive, am fost treziți. Când conștiința omenirii este cu noi şi adevărul ne este alături. Tineri și bătrâni, bărbați şi femei, se vor ridica și vor ieși împreună din adăposturile lor întunecate si sufocante pentru a renaşte în fericire şi armonie. Fiindcă spiritele strămoșilor noștri ne protejează din interior, iar energia întregii lumi ne protejează din afară, un bun început al acestei sarcini este deja un succes. Să mergem înainte în lumina din fața noastră.

Angajamentul celor trei principii

1. Rezistența noastră de astăzi este pentru a proclama cerințele poporului pentru dreptate, omenire, supraviețuire. Expunem conştiința libertății ți necesitatea de a nu devia de la calea dreaptă.

2. Până la ultima persoană, până în ultima clipă, trebuie să demonstrăm fără ezitare dorințele justificate ale poporului.

3. Fie ca toate acțiunile noastre să fie ordonate și solemne, astfel încât cerințele și atitudinile noastre să fie onorabile și corecte.

Prima zi a lunii martie a celui de-al 4252-lea an (1919) al Regatului Coreei.

Son Pyong-hui, Kil Son-ju, Yi Pil-chu, Paek Yong-song, Kim Wan-gyu, Kim Pyong-jo, Kim Chang-jun, Kwon Tong-jin, Kwon Pyong-dok, Na Yong-hwan, Na In-hyop, Yang Chon-baek, Yang Han-muk, Yu Yo-dae, Yi Kap-song, Yi Myong-yong, Yi Sung-hun, Yi Chong-hun, Yi Chong-il, Lim Ye-hwan, Pak Chun-sung, Pak Hui-do, Pak Tong-wan, Shin Hong-shik, Shin Sok-ku, O Se-chang, O Hwa-yong, Chong Ch'un-su, Choe Song-mo, Choe Rin, Han Yong-un, Hong Pyong-gi şi Hong Ki-jo

HUFS 비정상회담

미국의 동부와 서부, 각각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 of America)(이하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9억 8,315만 1천㎢의 면적으로 세계 국가 중 3위를 차지하는 미국에는 3억 1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람이 많은 만큼, 다양한 문화가 발생한 미국에선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여행지△자연환경이 모여 있는 미국, 동부와 서부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미국 동부 사진

▲미국 서부 사진

미국 동부에서 제가 방문 했던 곳은 △한국 전쟁 기념관△토머스 제퍼슨 기념관△뉴욕 타임스퀘어△예일대학교△하버드대학교에요. 그 중에서도 타임스퀘어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우선 그 곳의 건물들은 모양이 평범하지 않고 △엄청나게 긴 모양△세모난 모양△속이 비워진 모양이라 굉장히 특이했고, 전광판의 많은 광고를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저는 동부의 매력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자유의 여신상△록펠러 센터처럼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낮에는 뉴욕이나 워싱턴 D.C 특유의 도시다움을 느끼고 또 저녁엔 타임스퀘어의 멋진 야경을 보고 싶다면 동부를 추천할게요.

반면,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도시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가 있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엔 △금문교△피어39△스탠퍼드 대학교를, 로스엔젤레스에선 UCLA를 방문했어요. 그 중에서도 피어 39와 금문교에 가보는 것을 추천해요. 피어 39는 아주 큰 항구인데 거리엔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연주하며 거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또한 언덕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금문교를 바라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서부는 대체로 햇빛도 쨍쨍하고 편안하면서도 밝은 도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서부에는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진 관광지가 많아서 여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미국 서부로 놀러가세요!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노어과의 역사와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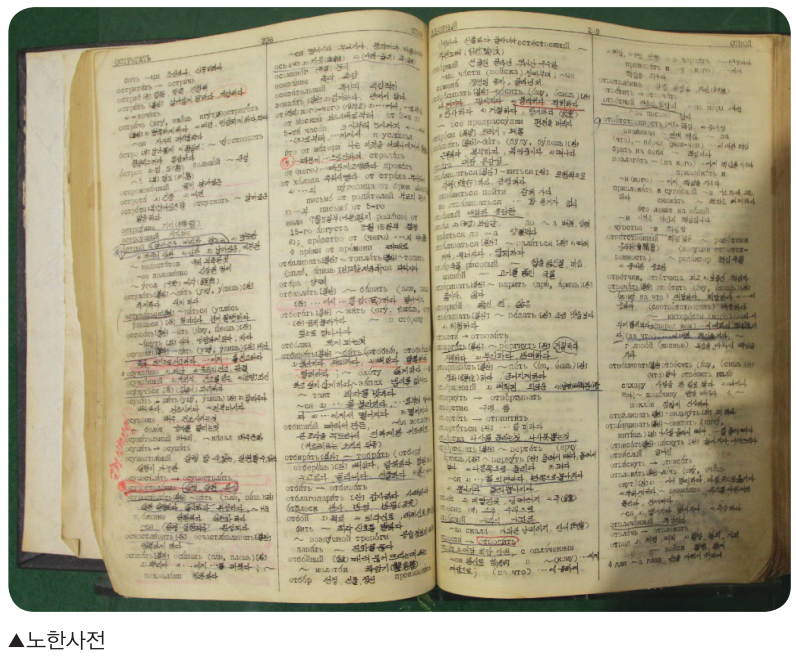
1954년 우리학교 개교와 함께 최초로 설립된 학과는 △영어과△프랑스어과△독일어과△중국어과△러시아어과 5개 학과였다. 당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영어△프랑스어△독일어와 달리 중국어와 러시아어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설립된 학과였다.

우리학교에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됐던 다른 외국어 학과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특히 러시아어의 경우 당시 국내 사회적 분위기와 국제 정세 등의 이유로 △관련 교육 교재△사전△커리큘럼 등이 사실상 국내에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학교 노어과 초대 학과장인 동완(董玩) 교수가 1950년대에 러시아어 타이프라이터를 구입해 교수 및 연구에 활용했다. 당시 신문사는 물론 출판사, 인쇄소도 러시아어 활자를 보유한 곳이 없던 상황에서 우리학교 러시아어과 교수들은 이 타자기를 통해 러시아어 교재 및 교본들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됐고, 러시아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

1963년 4월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노한사전은 이 타자기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사전의 러시아어는 이 타자기로, 한글은 우리학교의 동완 교수, 김학수 교수가 자필로 작성했다. 이 노한사전은 초창기 우리나라의 러시아어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러시아어 타이프라이터



▲노한사전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학생들의 이동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엔 수업이 열리는 5개 건물 가운데 3개 건물이 오르막에 위치하고 4개의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건물들은 비교적 평지에 있지만 건물 대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에 양 캠 교내 이동에 많은 시간과 체력이 소모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내 건물 엘리베이터 부재 현황△학생들의 불만△시설 신축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글로벌캠퍼스의 엘리베이터 부재 현황

강의가 진행되는 글캠의 6개 건물 중 백년관과 자연과학관을 제외한 4개의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다.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어문학관과 인문경상관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다. 어문학관 1층에는 △식당△카페△열람실△매점이 있고 2층부터 5층에는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이 있다. 교양관도 1층에 매점이 있고 2층부터 5층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층이다. 인문경상관은 4층까지 있으나 언덕에 위치해 건물 입구까지의 경사로가 가파르고 길다. 공학관과 자연과학관도 5층짜리 건물이지만 내부엔 엘리베이터나 별도의 경사로가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

교내 셔틀버스 정거장에서 건물 입구까지 도보로 약 5분 정도가 소요되는 가운데 건물 내부에서 엘리베이터 없이 높은 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학생들의 체력 소모는 더욱 크다. 특히 거동이 힘든 학생들은 이동에 있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다리를 다쳐 깁스하고 학교에 다녔던 백승호(국제 · 아프리카 19) 씨는 엘리베이터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는 "캠퍼스 자체가 가파른 곳에 있고 부지도 넓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초입에 있는 백년관과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는 교양관 수업이 있는 날에는 건물에 도착하기까지 평소의 3배가 더 걸리는 시간이 걸렸다"며 "교양관에는 다른 건물보다 계단이 많고 또 그 계단이 미끄러워 2번이나 넘어졌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같은 불편을 겪었던 황은빈(국제 · 그불 19) 씨 역시 "건물 간 거리가 멀어 깁스를 한 채 한 다리로 이동하는 데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었다"며 "강의실이 5층이라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는 것은 더 위험해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교양관 전경

글캠 건설기획팀은 "한정된 예산으로 전기시설이나 노후된 냉 · 난방 시설을 우선적으로 수리하다보니 각 건물의 엘리베이터 신축은 미뤄져왔다"며 "학생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고 도서관과 공학관의 노후된 시설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 다음 엘리베이터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캠퍼스의 엘리베이터 부재 현황

설캠은 글캠에 비해 평지에 있으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은 마찬가지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본관△교수회관△법학관△사이버관△미네르바 콤플렉스△외국어연수평가원△국제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건물엔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경사로를 이용해 건물 1층까진 진입하기 쉬우나 그 이상 올라가려면 모두 계단을 이용해야 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혼자선 이동이 어렵다. 이에 설캠 학생들은 2005년부터 학생자치회나 교내 언론 등의 다양한 소통 수단을 통해 학교 측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꾸준히 촉구했다. 설캠 건설기획팀은 교내 엘리베이터 신설에 대해 "엘리베이터 신축 공사는 정부의 교육선진화 정책을 기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된다"며 "예산 문제로 인해 한 해당 엘리베이터 한 대만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에 받은 지원금으로 인문과학관 엘리베이터 공사를 11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건물의 엘리베이터 신축에 대해선 "당장 이번 해에는 계획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도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어문학관 전경

▲인문경상관 전경

◆다른 학교의 사례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의 경우 지난해 '본관 엘리베이터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인 4층 높이의 본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건물이 '서울미래유산'으로 등재돼 구조나 외부 형태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다. 하지만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방문객의 편리함을 이유로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신축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학교 측 재정 부담을 덜었다. 이처럼 서강대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했다.

한편, 숙명여자대학교는 강의가 이뤄지는 16개의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이동권을 잘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과학관 전경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브라질 아마존 화재를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

최근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위한다는 이유로 환경보호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브라질 정부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해 브라질 아마존에선 9만 5천500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2010년 이후 최다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지난 8월 발생한 화재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브라질 아마존의 화재와 그로 인한 브라질 정부와 국제사회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아마존 화재의 심각성

아마존은 한반도 면적의 70배에 이르는 크고 넓은 열대우림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산소의 20~30%를 만든다. 아마존은 △브라질△볼리비아△콜롬비아△에콰도르 등 9개국에 걸쳐 있으며 브라질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에선 콩과 소고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영토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베어 경작지를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2050년쯤 아마존의 40%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 화재 사고가 급증하며 열대우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해에 발생한 화재 사고는 9만 5천500건에 이른다. 지난달에만 축구장 420만 개 면적에 해당하는 2만 9천944제곱킬로미터가 타버렸다. 또 약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화재로 서울의 15배가 넘는 면적이 훼손됐으며 이는 아마존 생태계의 20%에 해당한다. 계속된 화재로 아마존 인접 북부 지역인 △혼도니아주△마투그로수주△파라주 등까지 불길이 번지기도 했다. 지난달 19일엔 아마존에서 270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상파울루까지 검은 연기가 번져 일대가 대낮에도 밤처럼 어두웠으며 정전이 되기도 했다. 아마존 지역에선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었고 연기 때문에 비가 오염돼 식수에도 문제가 생겼다.

한편 이번 아마존 화재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있었다. 환경보호 운동가와 단체는 평소 아마존에 대해 반환경적인 태도를 보였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하 브라질 대통령)을 지목하며 비판했다. 하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비정부기구(NGO)가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 일부러 화재를 냈다는 식의 엇갈린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여러 추측이 잇따르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난개발*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다. 아마존 환경 연구소 설립자인 마울루 모티뉴는 "아마존에선 자연발생 화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 인해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개발 형태를 말한다.

◆ 브라질 정부와 국제사회의 갈등

이번 해 취임한 브라질 대통령의 대표 공약은 아마존 개발이었다. 그는 환경부를 없애고 농업부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당선 이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상업적 개발을 허용하겠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간과 벌목을 활발히 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브라질 발전을 저해하려는 국제사회의 음모"라며 화재 관련 통계를 거짓이라 주장했다. 이처럼 브라질 대통령은 아마존 개발이 주권적 권리라며 열대우림 보호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개입을 거부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전기톱 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환경 보호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아마존 화재까지 발생하자 유럽 연합 등 국제사회는 아마존 보존을 요구하며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에 대해 부당한 주권 침해라고 맞서며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하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아마존 화재를 '국제적 위기'로 일컫고 주요 7개국(이하 G7) 정상회의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브라질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은 식민주의 정신을 담은 것이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를 주요 의제로 뒀다. 그 결과 화재 진압과 열대우림의 장기간 보호 조치를 위해 20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브라질 정부는 G7의 기금 지원 제안을 환영하며 화재 진압을 위한 군 병력 배치를 촉구하기까지 했으나 브라질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이후 입장이 변했다. 지난달 26일 오닉스 로렌조니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라질은 민주적인 자유 국가로, 프랑스 대통령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식민 · 제국주의적 조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대변해 기금 지원을 거부했다. 또한 브라질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브라질의 자연 자원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 대통령이 G7 지원 논의 과정에서 "브라질 대통령이 환경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발언한 것에 사과하면 G7의 지원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화재가 일어난 아마존의 모습 (출처: 그린피스 빅터 모리야마)

하지만 지난달 27일 오타비우 두 헤구 바후스 브라질 대통령실 대변인(이하 대변인)은 "브라질 정부는 해외 단체는 물론 다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 열린 입장"이라며 사실상 브라질 대통령의 모욕 발언 철회 조건을 취소했다. 이어 대변인은 브라질 주권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금이 국내에 들어오면 브라질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기에 주권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아마존 화재에서 비롯된 외교 갈등이 브라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지난달 23일 아일랜드는 브라질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으로 이뤄진 남미 무역 블록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코)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핀란드 역시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금지의 가능성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압박이 브라질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17일 주한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동물권 단체 디엑스이 코리아 · 서울 클라이밋 세이브 등이 "아마존 화재 원인은 축산업"이라며 브라질 정부에게 "축산업을 폐지하고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브라질 정부가 축산업이 브라질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환경 파괴를 은폐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해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 발생건수는 84% 증가했지만 환경범죄자 처벌은 30% 감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아마존을 향한 지원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브라질 아마존 화재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형제이자 친구 국가인 브라질이 아마존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도 "콜롬비아 정부는 지구의 허파를 지킨다는 시급한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기 위해 형제 국가들에 도움을 주겠다"며 "아마존에 발생한 환경 비극엔 국경이 없으므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미국 또한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한 민간부문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며 브라질 정부의 정책 전환에 힘을 보탰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마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1억 달러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금은 앞으로 11년간 아마존 개발에 나서는 민간 주도 브라질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라우주 브라질 외무장관은 "개발은 숲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아마존 지역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지나 기자 99_jina@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흡 소 사 이 어 티

여자라크로스팀 Hufs Owls(흡스 아울)

우리학교엔 학생들끼리 모여 열정적으로 운동하는 여러 동아리가 있다. 그 중 독특하게 생긴 라켓을 들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염하늘(통번역·독일어 18)씨를 만나 여자 라크로스팀인 Hufs Owls(이하 흡스 아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자라크로스팀 Hufs Owls 단체사진

Q1. '흡스 아울'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아리는 만들어진 지 3년 된 스포츠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여자 라크로스팀 중 가장 늦게 만들어졌지만 이번 해 한국에서 열린 여름 리그 대학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2. 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나요?

처음엔 라크로스라는 운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 운동을 정말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즐겨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우연히 이 동아리를 알게 돼 들어왔습니다.

Q3. 라크로스라는 종목이 학생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운동인가요?

저 또한 이 운동이 생소했고, 라크로스라는 스포츠를 아는 분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에 한번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라크로스는 '크로스'라는 스틱을 사용하는 하키와 비슷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캐나다△미국△영국△호주 등에 널리 보급돼있습니다. 축구장보다 넓은 필드에서 야구공보단 작은 공을 주고받으며 골대에 골을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4. 동아리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훈련을 진행합니다. 한국라크로스협회에선 △여름 리그△대학리그△실내 인도어 리그 이렇게 1년에 세 번씩 리그를 주최합니다.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훈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 다른 대학과 함께 친선전을 열 때도 있습니다.

Q5.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나 경기는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일본에 가서 오카야마라는 대학팀과 치렀던 경기입니다. 우리학교 남자라크로스팀이 일본 대학팀과 먼저 친선경기를 했는데 우연히 저희 팀도 일본에 여자 대학팀과 연락이 닿아 이번 해 4월에 친선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라크로스를 제일 잘하는 나라여서 이기기엔 벅찬 상대였지만 그 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고 우리 팀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Q6.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땐 언제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팀을 이끌어주는 코치님이 없다보니 저희끼리 알아서 훈련을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항상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실력이 늘까, 이 훈련이 도움될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그래도 같이 도와주는 팀원들이 있기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7. 2학기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학기엔 다가오는 대학리그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대학팀과 친선전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대학리그의 목표는 우승인 만큼 2학기 훈련도 정말 열심히 할 것입니다.

Q8. 같이 활동하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한 마디 남겨주세요.

항상 다들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팀을 이끌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주장이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행복하다는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느 팀보다 분위기가 끝내주는 우리 아울스,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학리그 우승 한번 합시다! 호로로로록흡스흡스아울스! (팀 구호입니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홍콩 시위, 앞으로의 향방은?

최근 국제사회가 홍콩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이하 홍콩 시위)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해 6월부터 홍콩 시위대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홍콩 시위대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것은 총 5가지였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위의 원인과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강준영 우리학교 교수를 만나봤다.

사진제공 : AFPBBNews=뉴스

강준영 우리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Q1. 홍콩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홍콩 시위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하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22년간 홍콩에서 '일국양제' 가 실현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일국양제란 한 국가 내부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의 경우 국가는 중국이지만, 체제는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한다던 홍콩의 말과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홍콩 정부는 직선제를 통해 행정장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법률을 지난 22년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4년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 선거의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 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위는 실패했고 5년 후 다시 이번 시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시민들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와 동시에 행정장관 직선제와 자주적인 국가 통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홍콩 시민들이 중국과 홍콩 정부에 요구하는 5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위에서 홍콩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총 5가지입니다. 여기엔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한 철회△홍콩 시위대에 대한 폭도 지정 철회△홍콩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에 대한 정식 사과 및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전면 석방△홍콩 행정장관 직선제가 포함됩니다. 이 중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완전한 철회 요구는 홍콩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장관 직선제에 대해서는 시위대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2-1. 이번 달 5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은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협정 체결국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해 2월, 대만에서 홍콩인 남자가 홍콩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홍콩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홍콩△대만이 서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탓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자 동시에 일부 시민들은 해당 법안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중국 색체를 지닌 운동가나 정치인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 당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홍콩도 20여 개의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에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중국 정부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홍콩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두고 △홍콩 시위대△중국정부△홍콩정부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선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앙 정부에게 행정장관 직선제를 제외한 4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홍콩 시위대에 대한 폭도 지정 철회△홍콩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에 대한 정식 사과△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전면 석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장관 직선제는 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4. 현재 홍콩 시위의 폭력성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시위대를 상대로 무력진압을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력진압의 가능성이 있나요?

중국 정부가 무력을 통해 홍콩 시위대를 진압할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 진압에 무력을 사용할 명분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홍콩 시위대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국 정부의 시위대 무력진압은 일국양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는 홍콩을 이어 대만을 흡수하는 것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위대 무력진압을 최대한 지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홍콩의 막대한 경제력입니다. 홍콩은 세계 3위의 국제금융센터*를 가진 도시입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화의 60%는 홍콩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홍콩에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국제 금융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기관.

Q5. 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이 향후 시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영국 정부는 식민지 반환협정 당사자의 입장에서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을 당시, 약속한 일국양제를 중국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일국양제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 정부에 홍콩과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해 무력진압이 이뤄질 경우, 미중 간 무역협상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홍콩시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홍콩의 시위대는 유니언잭과 성조기를 들고 나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국과 미국의 발언은 시위를 국제화하고 싶어 하는 홍콩 시위대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6. 홍콩 시위가 바람직하게 마무리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홍콩 시민사회는 △친중국파△범민주파△1997년 이후 탄생한 젊은 층으로 나뉩니다. 이는 홍콩이 세 개의 시민 층으로 목소리가 나뉘어 화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 시위가 성공하기 위해선 홍콩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화도 중요할 것입니다.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는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홍콩 정부는 시위대의 5가지 요구 사항 중 적어도 2-3가지를 들어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일국양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감수-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취재- 김민준 기자 99kmj2086629@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0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9. 9. 30(월) ~ 10. 4(금)	10.26(토) 10:00	11.7(목) 14:00	11.11(월)~11.15(금)
일반전형	2019. 11. 11(월) ~ 11. 15(금)	12.7(토) 10:00	12.19(목) 14:00	12.23(월)~12.27(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 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기자의 의미

어렸을 때 나는 기자에 대한 막연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다. '기자' 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다급하게 소식을 전하는 기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러한 허세 가득한 상상이 원동력이 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 지원했고 현재는 외대학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외대학보에 들어올 때, 기자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배우는 기자가 되겠다고 야심 차게 포부를 밝혔다. 두 번째 마감을 하고 있는 현재, 계속되는 수정작업에 벌써 지치는 나 자신을 보니 지금은 초심을 생각해 봐야 할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기자는 대중들에게 외면받으며 '기레기' 라는 신조어를 통해 비하 받고 있다. 기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이 바닥이라는 점은 다소 아쉽다. 그러나 기자는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그들의 눈과 귀가 돼 사실을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대중들은 기자가 전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나는 기자가 단순히 사실을 옮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모두가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실재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따라 구성된 주관적 인식일까? 기자로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생으로서 항상 실재와 인식에 대해 고민한다. 대개 정치인들은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 왜곡된 보도가 일어났다"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기자들이 주관을 갖지 않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기사를 쓴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역할일지 의문이다.

이번 호에 강사법에 대해 다루면서 위와 같은 생각을 많이 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대학△대학과 강사△대학과 학생 사이 등 여러 곳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팽팽하게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사실' 이라는 것이 있을까, 내가 공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일었다. 또한 입장차이가 발생할 때, 이것을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다루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 아직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아마 꽤 오랫동안 이 학보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고민해야 할 주제라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자는 대중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공해 줘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자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프레임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그러나 기자의 생각을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배제한다면 기자의 의미는 왜곡될 것이다.

외대학보 활동이 내가 가졌던 포부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취재과정에서의 고난이 미화되는 기분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자의 고충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며 힘을 내야겠다. 외대학보에서의 기자는 막연히 가졌던 상상만큼 멋있지도, 스릴 있지도 않지만, 더욱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고민을 내게 던져주고 있다.

조미경 기자

문학칼럼 [문학 겉핥기]

일상 속 명암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를 읽고]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가 평등을 지향한다고 생각해 무의식중에 차별을 가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는 있지만 명확한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차별의 사각지대' 라 정의했다. 가해자는 숨겨주고 피해자는 드러내게 하는 이 사각지대는 차별적 언어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탓에 차별을 가한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없다. 사실 차별의 사각지대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땐 '자신도 모르는 특권이 존재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동시에 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자부하던 믿음이 깨지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곰곰이 고민해보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언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결정장애' 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인 '노키즈존' 이 생겨나는 것, 나이 든 사람의 말을 '꼰대의 잔소리' 라 말하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차별의 언어가 비일비재하게 사용됐을 것이다. 우리는 특정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도 차별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타인에게 차별을 가한 적은 없는지와 차별을 보고도 방관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인간은 기존 사회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고 이는 차별에 가담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차별을 보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졌다. 차별은 명암처럼 선명하지 않기에 쉽게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평등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침투됐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차별에 대응하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라고 생각한다. 당장 내 삶에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로 나 자신도 모르게 선량한 차별주의자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선량한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는 차별을 타파할 수 없기에 앞으로 나는 끝없이 나 자신을 되돌아 볼 것이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c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마음속의 작은 숲을 들여다보다 [리틀 포레스트]

서울에 살았던 주인공 '혜원' 은 4살 때 아버지의 요양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혜원의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편지 하나만 남겨두고 떠나버린다. 그 후 같은 마을에 살던 큰고모의 보살핌 아래 지내던 혜원은 대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서울로 떠난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혜원은 △시험△연애△취업 중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타지 생활에 지친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먹던 혜원은 따뜻한 밥이 그리워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혜원은 잠시만 쉬다가 돌아갈 생각으로 자신이 돌아온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큰고모와 오랜 친구들을 만나며 본격적으로 시골생활을 하게 된다. 시골생활에 정이 든 혜원은 봄만 보내고 가기엔 아쉬워서, 농사지은 작물들이 아까워서 등 여러 핑계로 그곳에서 사계절을 보낸다. 서울 생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혜원이 시골에 계속 머물게 된 데에는 친구인 재하의 역할도 컸다. 혜원의 친구인 재하는 혜원과 함께 대학을 가며 서울 생활을 시작한다. 재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반듯한 직장도 얻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뒤로 과감히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젊은 농부가 된 재하는 태풍 때문에 엉망이 된 농사를 보고도 초보 농부가 치루는 수업 값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재하를 보며 혜원은 서울 생활을 정리할 용기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좇아 시골에 정착한다.

영화는 그저 주인공의 일상생활만을 보여주며 잔잔하게 흘러간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다보면 어느샌가 영화는 끝나있다. 이 영화를 보며 내가 느낀 감정은 '부러움' 딱 하나였다. 시끄러운 사람들의 말소리와 정신없이 들리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본 시골의 평온함이 부러웠다. 먹고 싶은 요리를 해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가는 혜원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다. 그런 혜원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자신만의 작은 숲을 가지고 있다.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 일 것이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여유는 없어진 지 오래다. 경쟁이 일상이 돼버린 사회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 마음 속 작은 숲은 점점 잊혀져 간다. 여유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가 힘든 삶에 지쳤다면 이 영화를 보며 자신만의 작은 숲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1034호 학보를 읽고

기사의 중립성에 대해

남미르(LD · 19)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무더웠던 한 여름을 지나 드디어 개강을 했고,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와 지각하지 않기 위해 재촉하는 걸음에선 방학과는 사뭇 다른 생기가 느껴진다. 이번 1034호에서 역시 그러한 생기가 느껴진다. △A교수의 장기근속 포상 문제△비평을 쓰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한일관계 등 모두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흥미가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이번 호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우리 외대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는 바로 A교수 장기근속 포상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우선 외대학보가 취재의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학교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각각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이 돼준 것을 칭찬하고 싶다. 특히 이러한 점이 비대위의 주요 요구 3가지에 대한 교무처장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기획에서 '다른 학교의 교원징계 사례는?' 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학교의 징계 사례로 중앙대와 고려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과거 우리학교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중대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A교수의 사례 외에도 과거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 모 교수를 해임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우들의 관심을 더욱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론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이에 대한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을 쓴 기사를 비평하고자한다. 역시 이번 기사에서도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중립성을 지키고자하는 기자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을 실을 때 여당 인사의 반응만을 담거나 제1야당의 반응만 담는 것이 아니라 두 당의 입장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두 당이 언사를 주고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밖의 당의 입장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세밀함이 조금 아쉬웠다. 즉, 소주제는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이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의 반응만을 담고 있다. 또한, 정작 조국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했던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조국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면 당연히 각 의혹에 대한 조 장관의 해명과 답변도 기사에 담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학교 내의 소식들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보 기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또한 많은 학우 분들이 이렇게 유익한 교내 학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034호 학보를 읽고

외대학보의 잠재적 파급력에 대해

허진 (국제 · 그불 19)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1학기 초, 동기가 통학버스 승차권을 사 왔다며 종이 한 움큼을 내밀었다.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의 버스 승차권과 안내양의 존재를 주워들었던 터라, 종이로 된 승차권이 아직도 발매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러다 이번 1034호 외대학보의 통학버스 모바일 승차권 시스템 도입 관련 기사를 읽고 나서야 기존의 승차권이 불편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돌이켜보면 나는 항상 제도의 변혁을 추구하거나 의문을 품기보다는 그러한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만 했다. 이번 외대학보를 통해 본인과 같이 무비판적 성향이 있거나 느린 정보통을 가진 이들에게 이러한 학보의 존재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캠퍼스의 잉글리시 존(이하 잉존)을 다룬 기사가 특별하게 다가왔다. 통학버스 승차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부터 잉존의 예약 역시 모바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전산예약제가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열거했다는 점이 인상 깊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도 역시 불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끌어내고, 대표적인 우려 사항인 노쇼에 대한 대안을 학교 측에서 마련하는 중이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에 유의미하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서두에 잉존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후술되는 기사에서 이와 상반되는 현상이 많아지는 현실을 짚어내는 구성 방식이 기사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특히 페이지의 중앙에는 기사에서 다루는 논지를 파란색으로 강조 · 배치해서 명료해 보인다. 더불어 기사를 통해 잉존의 현주소를 인지하고, 그 원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었다. 다만 '잉글리시 존, 기회인가 부담인가' 라는 표제에서는 잉존의 학술적 효과의 실질성을 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 예상되었음에도 수업 구성 및 학습효과에 관한 내용은 한 문단에 불과해 아쉬웠다.

성추행 교수의 장기근속 포상 기사는 학생의 알 권리를 상당히 충족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떠한 조직이든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과 미흡한 후속 조치는 가능하다면 숨겨 그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은 후속 조치는커녕 사건의 발생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A교수의 포상 문제를 다룬 기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러한 사실의 발생을 알릴 수 있다는 신문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한 형태라고 본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책임의 무게란

'결자해지(結者解之)', 매듭은 묶은 사람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자신이 저지른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 책임감은 저마다 크고 작은 사회에 속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각자의 책임이 서로 얽혀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한 명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 그렇기에 책임감은 오늘날 각종 자기소개서 필수 항목으로 자리할 만큼 중요한 덕목이 됐다.

책임감은 자신이 벌인 행동의 결과를 부담하고 이를 중시하는 마음이다. 모든 행동엔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자유가 권리라면 책임은 이에 따른 의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항상 이상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는 사회 전반뿐 아니라 우리학교 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하 류 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류 교수는 강의 시간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또한 강의를 듣던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이 아니다"며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발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교수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에 따라 신중에 신중을 더해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내에서는 A교수의 '권력형 성폭력' 관련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수직적인 권력 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역시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는 교수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남은 책임의 무게는 그 갑절이 돼 고스란히 타인이 지게 된다. 따라서 책임은 양심의 동의어이자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가지고 누린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다. 하여 늘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안효빈 부장 97anhyobin@hufs.ac.kr

사설

객관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보도 자료나 기자 입장에 따라 객관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도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객관적이게 되는 것이 늘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객관적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고전 물리학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생각이다. 뉴튼(Iaac Newton, 1643–1727) 같은 이는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는 객관적 실체로서 입자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서양철학사에서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Ren□ Descartes, 1596–1650)는 그것을 자아(Self)라고 했고,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그것을 물자체(Thing itself)라고 했다.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이런 고전물리학적 사고방식에 따라 이른 바 실증사학 방법론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실증적 자료가 없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고전 뉴튼 물리학적 개념과 데카르트적 세계관의 틀에서 성립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가 역사학에 적용한 것이다. 그는 비판적인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료 속에 담겨진 순수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 그래서 '있었던 그대로 과거'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으로 보았다. 그런데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은 뉴턴의 입자설을 부정하였고, 1927년 코펜하겐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은 보어(Niels Henrik David Bohr, 1885–1962)의 '상보선 이론'과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 1901–1976)의 '불확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관찰자의 관찰행위 자체가 관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학에서조차도 관찰자에 따라 관찰결과가 변한다는 것이다. 즉 관찰자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려고 해도 그의 주관적인 사고방식, 의지, 감정, 신앙에 따라 그 관찰결과는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 결과가 순수하게 객관적이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물리학에서는 순수하게 객관적인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일본에서 임나경영설을 고집하거나 임진왜란 일제식민지를 합리화하는 것. 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복 야욕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의 그런 주관성에서는 이런 역사적 관점을 버리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객관적인 사실이라 부르는 것은 자신의 주관성을 가지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다만 주관과 객관이 서로 만나야 한다. 그들 간에 서로의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해야 한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식으로, 그것은 이제 사실(Fact)이 아니라 사건(Event)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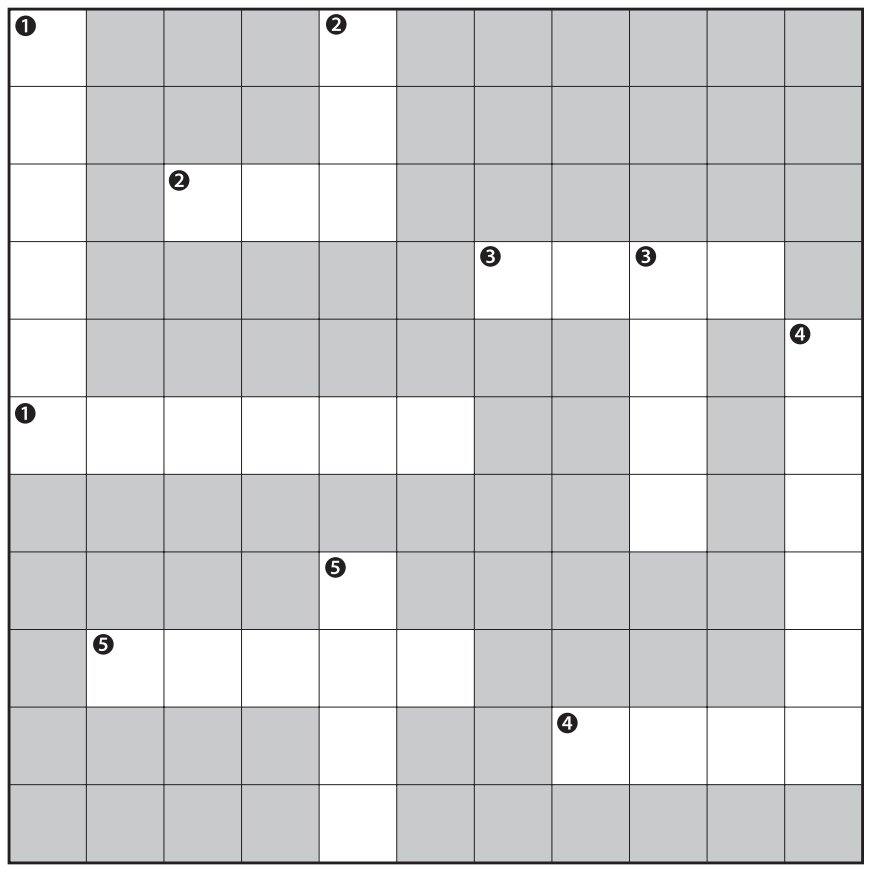
실증사학자들이 부르는 객관적 '사실'은 주관과 객관의 상보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사건'인 것이다. 관찰자의 입장이나 구미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고 분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적용가능하고,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사건도 온전한 사건이 되어야지 억지 주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한자문명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가(道家)의 노자(老子)를 통해 또는 역철학(易哲學)의 음양(陰陽)론적 사유를 통해, 이런 상보적인 접근에 대한 오랜 전통이 있어왔다. 『도덕경(道德經)』 제1장과 제2장에 있음(有)과 없음(無)이란 것이 사실은 같이 나온 것(同出)이고 이름을 달리한 것(異名)일 뿐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아래 앞뒤가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주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보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 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미적 인식 또한 보는 이에 따라 그리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어리석게 다시 묻고 싶다. 노자가 바라보는 것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 크고 깊은 눈을 가지고 그 스스로가 없는 곳에서 어느 것에도 얽매어서 보지 않으며 전체를 봄으로써 둘 다를 보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십자말풀이



가로

1.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 증 · 개축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1면 참조)
2. 대학들은 강사 고용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을 꼽았다. (4면 참조)
3. 강사법은 ○○○○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4면 참조)
4. '○○○○도 외국어대 사거리에서부터 학생들을 무료로 수송하긴 하지만 이는 도서관 앞까지만 운행된다. (3면 참조)
5.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지난 7월 진행된 ○○○○○와의 면담에서 △강사 수 변화△학과 · 학부별 개설학점 조정△개설학점 조정에 따른 이수제도 변경△교원 신분별 학점 배분에 대해 보고했다. (4면참조)

세로

1. ○○○○○○의 배차 간격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3면 참조)
2. 처음에 홍콩 시위는 홍콩 범죄인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9면 참조)
3. 강사법 시행 발표 이후, 우리학교는 2학점의 ○○○○을 맡는 강사들까지 강사법에 따라 채용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4면 참조)
4. 반면,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도시엔 샌프란시스코와 ○○○○○○가 있어요. (6면 참조)
5. 일부 전공과목의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강의에 대한 ○○○○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강좌의 수강생은 이미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 99기 수습기자(추가)를 모집합니다.

외대학보는 1955년 창간 후 2019년 오늘까지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학교 언론사입니다.
외대학보사에서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 있는 수습기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재학생
2. 모집기간 : 2019. 10. 06(일)까지
3. 지원방법
1)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나 에브리타임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는다.
2) 지원서를 작성 · 제출한다
3) 합격 발표를 기다린다.

4. 입사시험일정
1) 지원서에 적힌 연락처로 '면접고사 및 면접' 장소와 시간을 개별 공지함
2) 합격자 발표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5. 지원자 유의사항
1) 4학기 동안 활동 가능한 학생 지원 바람 (외대학보사 임기는 한 학기 수습기간 제외 총 3학기)
2) 합격자는 2주간의 교육 기간을 거쳐 1037호 마감부터 참여하게 됨
3) 합격자는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회의와 조판에 참여가 가능해야 함

6. 문의사항 연락처
〈97didu@hufs.ac.kr〉, 서울배움터 기자실: 02)2173-2504
☆ 언론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보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 외대학보는 열정과 책임감 넘치는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PRESS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7didu@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지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박현우 이노레드 대표를 만나다

새로운 기술들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감성'에 집중하는 흔치 않은 회사가 있다. 바로 광고대행 업체 '이노레드'다. 기술과 감성을 결합해 ICF와 소셜무비 등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낸 이노레드는 △칸느 페스티벌△뉴욕 페스티벌△클리오 어워드 등의 해외 유명 광고제에서 수상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데엔 '인간'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는 박현우 대표의 영향이 컸다.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찾고 이를 광고에 적용하는 박현우 (사회 · 신문방송 99) 이노레드 대표를 만나봤다.

Q1. 대학시절부터 이노레드 창립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학교에 재학할 당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신문방송학과로 불리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와 함께 사회과학계열로 묶여 있었죠. 전공 수업은 광고를 포함한 방송, 프로덕션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실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당시 제 별명은 '박사장'이었죠. 처음 창업을 결심하게 된 데는 경제적인 상황의 영향도 컸습니다. 저는 매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기에 수많은 과외를 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실제로 복학해서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던 중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돌파구로 사업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사업가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광고일을 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일을 하겠다고 완전히 결심했던 계기는 친구들과 광고 공모전에 나가 금상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광고를 선택한 이유에 시대적 상황도 한몫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엔 웹을 중심으로한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각광받는 것을 보면서 광고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새로움이 필요한 광고업에 젊음을 가진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광고에 점점 다가가게 됐습니다.

Q2. 이노레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노레드는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창립된 해부터 지금까지 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원이 단 한 명도 퇴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창립초기부터 '문화'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는 복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복지가 혜택 위주의 설계라면 문화는 생활양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면 문화는 말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까지 모두 아우를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즉, 문화는 복지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죠. 이노레드 창립을 한 첫날부터 저는 이 문화를 가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이라는 뜻의 '워라벨'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타 기업들보다 일찍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이미 7-8년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자사규칙으로 채택해 저마다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다시 창의력에 반영됐죠. 이러한 구조가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Q2-1. 그렇다면 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역사와 사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꾸며낸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벌어진 사실을 좋아합니다. 브랜드를 광고할 때도 그 브랜드가 가진 기술의 사실성을 확인할 정도이니까요. 역사 속에서는 식민 지배국이 식민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민지의 문화를 말살시키려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우리 문화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었죠. △한글△지식인△장인들의 기술들을 제거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를 뽑으려 했습니다. 이는 어떤 나라를 지배하는 데에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역사를 통해 문화가 강하면 어떤 침략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노레드를 창립할 때도 좋은 문화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3.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광고의 묘미는 무엇인가요?

광고의 묘미는 과정 자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광고를 만들어내는 광고인들은 동시에 기업의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광고인들도 기업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다시 광고에 적용하죠.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직업적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광고인들은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품을 팔기위해선 계속해서 젊은 층들을 분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하시고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시는 광고인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이처럼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움과 신선함을 줍니다. 광고를 만들면서 작품 하나하나에도 즐거움이 있었지만, 직업자체의 매력과 그 과정에서의 배움의 기쁨이 있어 좋았습니다.

Q4. 광고인이 갖춰야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광고인이 갖춰야 할 자질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에 대한 분명한 비전입니다. 광고회사엔 이 일에 미쳐 광고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들을 소위 광고쟁이라고 불리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뿌리 깊은 나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처음엔 작은 나무라도 결국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경험과 노력입니다. 최근 20대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기본적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이에 단순히 SNS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력입니다. 협동력은 1+1의 결과를 2가 아니라 3 혹은 4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 동료의 힘을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죠. 광고업에선 기술적으로 완성돼 있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려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Q5.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으로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져 왔기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이노레드의 구성원들과 타 기업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합니다. 최근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갑질'이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노레드는 갑질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강하게 맞서 싸워 왔고 정의를 지키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기업문화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간다면, 다른 기업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광고 산업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6.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고려하는 순간, 선택하기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나 살기도 바쁜데'라는 생각으로부터 야기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타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상한 것입니다. 나의 잣대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것을 깨닫고 타인을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타인을 보는 시각을 넓혀보세요.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